

보문동 '아침을 여는 집' 실적 노숙자들 불우이웃에 지붕수리등 집단장 봉사

“아픔도 나누면 기쁨돼요”

13일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한 허름한 주택.

전직 도배·보일러 기술자와 전기 기사 등 3명의 실적노숙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골방이 쓴 단칸방과 부엌을 정성스레 손질하고 있다. 얇힌 전기선을 정리하고 비가 오면 빗물이 새는 방 부위는 시멘트로 바르고 지붕도 수리했다. 구멍난 문짝도 말끔히 고치고, 도배도 새로 했다. 가끔 고장나는 기를 보일려고 손을 댔다.

97년 말 IMF 관리체제의 여파로 실적해 한시 자활 대상자가 된 이등통씨와 그 가족들은 미안한 마음에 분주하게 돕는다. 작업 중간의 새참시간에는 정성스레 마련한 막걸리와 빈대떡을 나누며 다정한 대화가 오간다. 돕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실적이라는 아픔을 겪고 있기

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덕담들이 이어진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김동훈)이 운영하는 실적자구조 자활모임터인 보문동 아침을여는집에 입소한 18명의 실적자들이 불우한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에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들 입소자들은 성북구 지역 무의탁노인, 실직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의 궁핍한 살림에 도움이 되고자 도배, 보색, 간단한 개·보수 등 집단장 봉사를 13일부터 시작했다.

1차로 4월10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차례 실시되는 이 자원봉사의 수혜자들은 실적 가정으로 단칸방에 살고 있는 이등통씨와 거택보호자인 노귀동·임대규 할아버지, 이귀분 할머니 등 4명. 한 가구당 20여만

원이 소요되는 재원은 아직 후원자가 없어 어렵게 마련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실적노숙자 스스로의 자활의식을 고양시키는 물론 지역사회에 실적노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으로서의 동병상련의 유대감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침을여는집 이주원 간사는 “이번 봉사활동의 성과가 좋을 경우 구청과 협의해 실적자 공공근로사업으로 신청할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고 말했다.

첫날 자원봉사에 나선 한 입소자는 “작은 일이지만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세상을 헤쳐나갈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02)924-1010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 '창립'

27일 조계사서 총회

불교 바로세우기를 염원하는 재가연대(창립준비위원장 서돈각) 창립총회 및 기념포지엄이 27~28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개최된다.

27일 오후 6시에 열린 창립총회에는 5백여명의 재가불자가 참가하여 정관제정,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을 결의할 계획이다.

이어 28일 오후1시부터 '출가정신과 재가연대'를 주제로 윤세원교수가 진행하는 창립기념 심포지엄은 이종포 전남대교수가 '98년 조계종사태와 부처님 출가

의 의의' 최연 대불련동문회 사무총장이 '재가연대의 조직과 활동방향' 등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윤원철교수(서울대) 성재도원장(부산불교교육원) 윤남진계장(조계종교인) 손학재사무처장(참여연대) 등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와 관련 서돈각창립준비위원장은 “종단사태의 와중에서 전국의 지도급 재가불자들이 힘을 모아 종단바로세우기 운동을 펼치면서 조직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며 “한국 불교가 상식적이고 청정한 교단으로 되돌아 재가불자의 뜻과 힘을 모으겠다”는 창립취지를 밝혔다.

김원우 기자



불교조계종 포교사 품수

조계종 새 포교사 품수

조계종 신규 포교사 품수식이 7일 오전 대전 한국통신 연수원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포교사고시 합격자 257명 가운데 238명이 참석, 포교원장 정권선으로부터 포교사증을 수여받았다.

이날 품수식은 예년과 달리 1박2일의 일정으로 오리엔테이션과 품수식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신규 포교사 품수식이 7일 오전 대전 한국통신 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날 품수식은 예년과 달리 1박2일의 일정으로 오리엔테이션과 품수식으로 진행됐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통도사 배발절 철거 '갈등확대'

통도사(주지 월파) 내 배발절이 9일 철거돼 통도사측과 청하스님 상좌들간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통도사측은 “배발 절을 위한 농막이었던 배발절이 탈성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어 철거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발절 신도와 청하스님측 스님들은

충무원의 관심과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8일 통도사 종진스님들의 성파(서운암 주지) 원명(비로암 주지) 태웅(관음암 주지)스님 등 7명의 수습대책위원회(위원장 초우)를 구성하고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성바로병원 스님 치료비 30% 싸게

“스님, 당신도 저와 같이 수도자의 길을 가는 동반자입니다.” 가톨릭병원 부설 청량리 성바로병원 기획실 팀장 현아랫다 수녀님이 병원을 찾은 스님에게 나지막히 건네는 말이 낯설지가 않다.

신부와 수녀들에게 병원비 30%의 감면혜택을 주던 성바로 병원이 1일부터는 스님들에게도 확대적용해 병원비를 깎아주며 수행의 도반으로 손을 잡았다. 스님들의 병원비 감면은 등산을 가 절에서 스님들에게 점심을 대접할 때마다 불교의 자비정신에 감동받았었다는 현아랫다 수녀의 제안에 병원장 김기순 수녀의 찬성으로 결정됐다.

현 아랫다수녀는 “고독한 수행의 길을 가면서도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스님들에게 병원비 감면 혜택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일 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현아랫다 수녀는 피부과 치료를 받고 뜻하지 않게 30%의 병원비 감면을 받은 지행스님(지장사 주지)의 주선으로 5일 고산스님을 만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고산스님은 “성바로 병원 측의 큰 사랑에 고개를 숙인다”고 말하고 책<선, 깨달음의 길>을 선물했다.

성바로 병원은 승려증을 소지한 스님들의 병원비 30% 감면 혜택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대불련출신 의사 30여명 '선재의료회' 창립

한외과·내과등 7개팀 매주 의료봉사

대불련출신 의사들이 무료 인

술봉사를 펼치기 위해 선재의료회를 창립했다.

5일 3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식을 갖고 회장에 강경구(49, 강경구내과원장), 고문

에 양재수씨(양재수이비인후과원장)를 선출했다. 선재의료회는 매주 교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키로 하고, 1차로 28일 해명양로원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경구회장은 “종교의 기능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포함된다”며 “불교의 사회화를 위해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선재의료회는 한외과 내과 의과 치과 이비인후과등 7개과를 팀으로 나눠 의료봉사활동을 펼

칠 계획으로 있으며 불자간호사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특히 선재의료회는 앞으로 대불련출신 의사들을 규합하여 산부인과 피부과등의 의료팀 구성과 전국조직화를 기할 계획이며, 의료봉사가 필요한 전국 각지 불교 사회복지시설의 집수를 수시로 받고 있다. 문의 (02)573-7406, 518-0845

한편 선재의료회는 선재마을에서 법회활동을 해오던 의사들이 중심이 돼 창립했으며, 부른별 의료팀 간사에는 내과에 강경구, 외과 노만수, 치과 김광수, 소아과 이종린, 한외과 김경현씨가 맡았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실업극복지원사업 조계종 올해도 적극 전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9일 재단 강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실업극복지원사업은 실업극복국민운동 등 민간단체의 지원 확대를 늘어난 예산에 힘입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실업극복 지원사업에는 7천5백여만원의 소요되는 결사아동지원사업과 불교계 푸드뱅크 설립 및 무료급식사업(5천만원 추경예산 반영예정), 1억2천만원이 특별회계로 편성된 '우리가 남인가' 사업, 정부로부터 4억3천여만원이 지원되는 3개 보현의 집 운영 등이 예정되어 있다.

김재경 기자

“정치수배자 영역 탄력운영 필요”

실천승가회·전불련등 성명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불교운동연합,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동문회, 불교장기수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는 8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청년학생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해 국회와 정부 당국이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6개 단체들은 “청년 양심수들이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영역의 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향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도필선 기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

정화회의측이 별번한 스님은 1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1, 종걸, 성덕, 법성, 해산, 대3, 고산, 법통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고산·월주스님 징계 당화회의 초심회계원

정화회의 회계원(원장 상덕)은 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별번의 결정을 했다.